

성장통스토리공모전 수상작 &

수상자 멘토링 활동집

2025 Crystal Log



성신여자대학교
SUNGSHIN WOMEN'S UNIVERSITY

성신과 함께한
나만의 성장 이야기,
도전의 순간을 소통하다

Contents

- 1** 도전을 통해 성장하다: 나의 글로벌 대학 생활 7
김수민 | 경영학과
- 2** 숫자와 코드 사이에서, 결국 사람을 배우게 된 시간들 17
이수빈 | 시용합학부
- 3** 인생이라는 작품 속 나만의 서사를 찾아가는 여정 25
이소정 | 수리통계데이터사이언스학부
- 4** 출발선, 그리고 워밍업의 시간 35
추서연 |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 5** 한번의 용기, 수많은 도전 : 나를 찾아가는 대학 생활 45
이다혜 | 소비자산업학과
- 6** 조금은 느려도 더욱 더 단단하게 55
신윤서 | 바이오헬스서비스학과

소개글

『2025 성장통스토리공모전 수기집 × 멘토링 활동집 | 크리스탈 로그』는 성신여자대학교 성장통스토리공모전에서 수상한 학생들의 성장 스토리를 담은 기록집입니다. 대학 생활 속에서 마주한 도전과 고민,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배워온 순간들을 모았습니다.

성장통스토리공모전은 성신여자대학교의 교육이념인 성신(誠信)·지신(知新)·자동(自動)을 바탕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도전하고 배움을 탐구하며 스스로 실천해온 학생들의 경험이 더 많은 재학생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기획되었습니다.

이번 수기집에 실린 이야기의 주인공들은 성신에서의 배움을 토대로 교내외 다양한 활동에 도전해온 재학생들입니다. 이들은 스토리 발표회와 멘토링 활동을 통해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개인의 성장이 다시 누군가의 출발점이 되는 과정을 함께 만들어갔습니다. 이 기록들이 자신의 방향을 고민하고 있는 누군가에게 작은 공감과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수상자 발표회 영상은 아래 경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성신여자대학교 교육시스템 로그인 ▶ e-Class ▶ '2025 성장통 스토리 공모전 수상자 발표 영상'

1

도전을 통해 성장하다: 나의 글로벌 대학 생활



김수민
경영학과 (21학번)

들어가며

여러분은 어떤 꿈을 가지고 성신여자대학교에 입학하셨나요? 이 글을 읽는 수 정이들 중에는 저처럼 대학에 처음 들어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고, 수업은 어렵고 공부도 손에 잡히지 않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입학 당시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상황 속에서 온라인으로만 강의를 듣느라 학교생활을 하지 못했고, 진로에 대한 뚜렷한 목표도 없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대학 생활에 큰 흥미를 느끼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졸업을 앞둔 지금의 저는, 후배들에게 작은 조언이라도 건넬 수 있는 어엿한 선배가 되었습니다. 이 글을 통해 누군가가 저처럼 대학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헤매지 않기를 바라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실패를 맞보다

저는 대학 생활에 대한 특별한 로망 없이 입학했기에, 주변 친구들처럼 동아리나 학생회 활동도 하지 않은 채 소극적인 대학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는 언니가 교환학생으로 출국한다는 말을 듣고 ‘나도 한 번 가볼까?’ 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토익 점수를 급히 만들어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뚜렷한 목표나 계획 없이 덜컥 지원한 결과는 불합격이었습니다. 나중에 우연히 당시 썼던 자기소개서를 다시 읽어보며 그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제 글은 교환학생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진정성 있는 동기나 계획도 부족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던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는 이후 제 대학 생활을 바꾸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글로벌 기업탐방으로 전환점을 맞이하다

그렇게 1·2학년은 특별한 사건 없이 지나갔고, 정치외교학과에서 경영학과로 전과한 뒤에는 오히려 더 고립된 기분으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교내 게시판에서 ‘글로벌 기업탐방’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습니다. 글로벌 기업탐방은 성신여자대학교 현장실습운영팀이 주관하는 프로그램으로, 해외 기업 현장을 방문하고 직무 담당자들과 인터뷰하며 진로를 탐색하는 활동입니다. 설명을 읽는 순간, “이건 내가 직접 부딪혀 볼 수 있는 기회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전에 실패로 끝났던 교환학생 도전에 비해, 이번에는 스스로 뭔가 만들어가는 프로젝트라는 점이 저에게 매력적이었습니다.

학교에 다니며 팀 프로젝트는 여러 번 해봤지만, 비즈니스 메일을 보내거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본 경험은 없었기 때문에, 해외 기관과 직접 연락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하면 된다!”라는 마음으로 비즈니스 메일 초안을 만들고, 교수님의 피드백을 받으며 점차 완성도를 높여갔습니다. 팀장으로서 구글 드라이브·노션을 활용해 협업 구조를 만들고, 각 팀원의 강점을 살려 역할을 배분하며 자연스럽게 리더십과 프로젝트 매니징의 기초도 함께 배울 수 있었습니다.



준비 과정 자체도 배움이었지만, 최종 합격 후 독일에서 기업을 탐방한 경험은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인사이트를 남겼습니다. 현대모비스, 금호타이어 등 해외 시장에서 활약하는 국내 기업과 Munich Business School 같은 해외 기관을 직접 방문하고, 담당자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모바일 모빌리티 관련 기술을 현장에서 직접 보고, 한국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어떻게 경

쟁하는지 설명을 들었을 때, 책과 강의로만 접하던 글로벌 비즈니스의 세계가 눈앞에서 펼쳐지는 듯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꼭 한국에만 머물 필요는 없구나”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고, 해외 취업이나 영어로 소통하는 기업에서 일하고 싶다는 구체적인 목표가 생겼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탐방이 아니라, 제가 처음으로 세상과 부딪히며 성장할 수 있었던 전환점이었습니다. 또한 함께 참여했던 친구들과 새로운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학교생활에도 흥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국제학생회 활동을 통해 자신감을 키우다.

해외에서 일하고 싶다는 목표가 생긴 뒤, 자연스럽게 글로벌 역량을 키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교내 단체인 국제학생회 SISA를 알게 되었고, 기획팀장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SISA에서 다양한 외국인 대상 행사를 기획하며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새로운 일에 부딪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한 것입니다. 이전의 저는 어떤 활동을 하기 전에 걱정이 많아 항상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하며 행동에 옮기는 것을 망설이곤 했습니다. 하지만 국제학생회에서 프로그램 기획 단계에서 제 아이디어가 채택되는 과정을 보며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하고 신중하게 실행에 옮기는 것도 일을 진행할 때 실수를 줄이는 방법 중 하나이지만, 때로는 일단 시도해 보는 용기도 상황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덕목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외국인 학생들이 준비한 자국 문화를 교내 재학생이 체험하는 일종의 문화 교류 행사인 ‘제1회 성신 글로벌 페스티벌’입니다. 처음 만



드는 행사였기 때문에 학생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을지 걱정도 많았지만, 결국 ‘일단 해보자!’는 마음으로 기획을 시작했습니다. 베트남 전통놀이, 남미 음식 먹어보기, 터키 전통 춤을 보는 공연 등 외국인 학생들이 직접 준비한 문화를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를 구성했습니다. 그 결과 400명 이상이 참여한 대규모 행사가 되었고, 행사 후 “비행기 타지 않고 세계 여행한 것 같다”라는 피드백까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내가

만든 시도가 누군가에게 새로운 경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며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 경험은 제게 도전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소중한 전환점이었습니다.

글로벌 인턴십에서 기획의 꿈을 구체화하다.

국제학생회에서 국제 학생들과 소통하며 어렵게만 느껴졌던 영어로 소통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떨친 후, 인턴으로 해외에서 일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외에서 생활하는 것 외에도 한국어가 아닌 영어로 일해야 한다는 두려움이 있었기에 망설였지만, 타국에서 일하는 경험은 다시는 오지 않을 소중한 기회일 것 같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지원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외국계 기업 이력서 작성, 영어 인터뷰 준비, 낯선 포맷의 자기소개서까지 모든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지원 기간이 시험 기간과 겹쳐 독서실에서 울며 자기소개서를 작성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이때의 경험이 있었기에 이후 외국계 기업 인턴을 지원할 때 더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쓸모없는 경험은 없다”라는 어머니의 말씀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베트남 SRO MOST의 기획 부서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며 처음으로 행사 운영 실무를 경험했습니다. 현지 관계자들과 일정을 조율하고 소규모 내부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은 예상보다 복잡했지만, 그만큼 큰 보람과 즐거움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침 베트남의 설인 ‘땃(Tết)’ 기간이어서 전통 문화가 물든 거리의 분위기를 직접 체감할 수 있었고, 행사가 문화에 따라 얼마나 다채롭게 구성될 수 있는지도 배웠습니다.



이전까지는 ‘기획’이라는 단어가 막연하게만 느껴졌지만, 직접 현장에서 일해보니 사람들과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나와 꽤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은 성공 경험들이 이어지며 “나는 이런 분야에서도 일을 해볼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이 생겼고, 이때의 자신감은 막연하게만 느껴지던 해외 취업

의 꿈을 조금 더 현실적인 목표로 바라보게 만든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베트남이라는 낯선 환경에서 한 달 동안 같은 성신여자대학교 학우들과 서로 의지하며 지냈던 시간은 제게 무엇이든 극복할 수 있다는 회복탄력성을 길러주었습니다. 함께 생활했던 하우스메이트 친구들과는 지금까지도 좋은 관계를 이어가며 당시의 즐거웠던 순간들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짧지만 강렬했던 이 한 달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경험 중 하나이며, 해외에서 일하고 싶다는 마음을 현실에 더 가까운 꿈으로 끌어당긴 결정적 계기였습니다.

교환학생 도전으로 글로벌 커리어의 꿈을 꿈꾸다.

4학년 2학기, 저는 다시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도전했습니다. 해외 취업을 위해서는 해외 대학에서의 학문적 경험도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분명한 목표와 경험이 있었기에 훨씬 더 확신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는 합격이었습니다! 과거 교환학생에 떨어져 낙심했던 2학년에서 1지방인 빈 대학교(University of Vienna)에 합격한 4학년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교환학생 적응을 돕기 위해 글로벌 프렌즈 전공 멘토링에 참여했고, 몽골에서 온 신입생에게 경영학 멘토링을 진행하며 국제 학생들의 진로 고민을 가까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을 더 깊게 이해하는 과정에서 글로벌 환경에서의 소통이 단순한 언어 능력이 그치지 않고, 타인의 문화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힘임을 깨달았습니다.

국제회의 기획사 인턴십으로 꿈을 확장하다.

해외 인턴십을 통해 경영기획의 매력을 느낀 이후, 저는 이를 실무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분야를 찾던 중 국제회의 기획사(PCO, Professional Convention Organizer) 인턴십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의 전략과 운영을 다루는 경영기획과 달리, 국제회의 기획은 글로벌 행사를 실제로 운영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업하는 ‘현장의 기획력’이 핵심이었습니다.

국제회의 기획사에서의 업무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적이었습니다. 해외 연사 초청 메일을 영어로 작성하고, 행사 자료를 번역하거나 참가자 등록 데이터를 정리하는 일부터 시작해, 실제 회의 당일에는 현장 진행 지원까지 맡았습니다. 행사 공식어가 영어인 만큼, 해외 참가자들과의 실시간 커뮤니케이션도 빠르게 익혀야 했습니다. 처음엔 긴장됐지만 점차 익숙해지면서, 그동안 쌓아온 글로벌 역량이

현장에서 빛을 발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각 부서가 한 프로젝트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야 하는 회의 운영 과정을 보며, '기획'이라는 일이 단순히 아이디어를 내는 것을 넘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조율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제가 앞으로 더 깊이 배우고 싶은 분야가 '국제회의 기획'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경험은 제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분명히 해주었습니다. 저는 향후 국제회의·이벤트 기획 분야의 전문성을 체계적으로 배우기 위해 해외 대학원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참가자들이 협력하고 소통하는 글로벌 무대에서, 더 넓은 시야로 행사를 설계하는 기획자가 되고 싶습니다.

마무리하며

처음 목표 없이 입학했던 스무 살의 저와 지금의 저를 비교해 보면, 지금의 저는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한층 성숙해진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대학 초반에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주저했지만, 하나씩 발을 내디딘 경험들이 결국 지금의 저를 만들어주었습니다. 교내 다양한 활동에 도전하며 긍정적인 자극을 주는 친구들과 함께 성장하는 저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뿌듯함을 느낍니다.

한 가지 후배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실패하더라도 일단 도전해 보라는 것입니다. 처음 글로벌 기업탐방에 지원했을 때만 해도, 제가 이렇게 다양한 국제 경험을 쌓고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느낄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이번 한 번만 해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작은 도전이,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잘해서 성장한 게 아니라, 도전했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학 생활을 하다 보면 실패가 두려워 도전을 미루게 되는 순간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도전의 순간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순간을 놓치지 않는 용기가 중요합니다. 이 글을 읽는 모든 수정이들도 혹시 망설임

속에서 있다면, 눈을 꼭 감고 용기 있게 한 걸음 내디뎌보길 바랍니다. 그 한 걸음이 여러분의 가능성을 열고, 지금의 저처럼 자신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할 것입니다. 저는 수정이들의 도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글로벌 경험과 노하우를 나누며 서로의 가능성을 확장한 시간

멘토 김수민

멘티 이유정, 오하민, 송빈

1. 멘토링 목표

- 멘티가 지원하기 쉬운 교내 프로그램부터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교외 프로그램까지 소개하여 글로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실제 교환학생 준비 과정, 장학금 신청, 해외 활동 사례를 바탕으로 준비 전략과 실행 방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함

2. 주요 활동 내용

- 교환학생 관련 정보 공유 - 멘토의 자기소개서 공유 등 지원 꿀팁 소개
- 교환학생 지원 자기소개서 1:1 첨삭
- 성적 장학금 없이 교내 활동으로 장학금 700만원 받는 방법 소개
- 교내 해외 관련 프로그램 / 대외 해외 관련 프로그램 소개

3. 활동 사진



교환학생 지원 자기소개서 1:1 첨삭



다양한 해외 관련 프로그램 소개

4. 멘토 소감

멘티들에게 소개해 줄 자료를 공유하면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이지만 이를 한눈에 보고 습득하는 것은 참 쉽지 않다는 것을, 또 이런 정보를 누군가가 저에게 알려줬다면 저도 많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지 않았는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멘토링 시간은 저에게 항상 부듯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나에게도 이런 멘토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아깝다는 생각이 동시에 드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성장통 스토리 공모전 멘토링 활동을 통해 이런 시간이 많아져 더 많은 후배가 성신여자대학교의 좋은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면 좋을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5. 멘티 소감

멘티 이유정(통계학과)

멘토님과 멘토링을 통해 교환학생 지원 과정에서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1지망 대학교에 합격하는 성과도 났고 합격뿐만 아니라 멘토님의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태도가 도전을 두려워하는 제게 큰 자극이 되었습니다. 멘토링 프로그램을 1,2학년 때 알았다면 학교 생활을 훨씬 풍성하게 보낼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들 정도로 지금까지 참여한 교내 프로그램 중 가장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멘티 오하민(AI융합학부)

교환학생 준비처럼 막연했던 계획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글로벌 기업 탐방 등 멘토님의 다양한 경험담을 들으며 지금 제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가 명확해졌어요. 덕분에 올해 성신글로벌프렌즈에 지원할 수 있었고, 내년 교환학생 준비에도 확실한 방향이 잡혔어요. 전반적으로 학교 안에 이렇게 다양한 국제 프로그램과 장학 제도가 있다는 걸 처음 제대로 알게 되어 유익했습니다.

멘티 송빈(바이오헬스서비스학과)

이번 멘토링을 통해 교환학생 준비와 비교과 프로그램 활용 팁처럼 혼자서는 절대 알 수 없던 현실적인 조언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고 짧은 기간이었지만 다음 할 일에 대해 방향을 잡는 데 확실한 도움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더 자신감이 생겼고 좋은 경험 만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숫자와 코드 사이에서, 결국 사람을 배우게 된 시간들



이수빈
시용합학부(23학번)

들어가며

대학교에 오기 전까지 저는 늘 ‘정답을 맞히는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학 생활을 시작하고 보니, 세상에는 정답이 없는 문제들이 훨씬 많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어려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낯선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책에서는 찾을 수 없는 질문들이 계속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직접 부딪혀 보기로 했습니다. 멘토링, 공모전, 데이터 분석, 해외 인턴까지 다양한 경험을 했지만, 과정이 늘 매끄럽지는 않았습니다. 부족함이 드러나는 순간도 많았고, 잘 하고 싶은 마음과 현실 사이에서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런 경험들이 제게 가장 큰 배움이었습니다. 3학년이 된 지금도 완성된 답을 가진 사람은 아니지만, 여러 경험을 거치며 ‘이 방향이라면 계속 걸어가도 되겠다’는 작은 기준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글은 그 변화의 기록을 남기고 싶어 쓰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작은 이야기일지 몰라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분께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라는 마음이 전해지길 바랍니다.

기술로 연결되는 마음, 교육이 가진 힘을 배우다

대학 입학 후, 저는 교육 기회가 충분하지 않은 환경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을 돕고자 EBS 수학 멘토링에 참여했습니다. 어느덧 2년째 이어오고 있는 이 활동을 통해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는 교육’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매주 비대면으로 두 번씩 아이들을 만나 한 문제를 여러 번 설명하고, 이해될 때까지 함께 기다렸습니다. 처음에는 수학에 대한 두려움으로 고개를 숙이던 아

이들이 작은 성공을 경험하며 표정이 밝아졌고, 한 아이는 50점대였던 수학 점수가 80점을 넘기며 제게 자랑스럽게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순간들을 통해 교육이 지식 전달만이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를 믿게 만드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2학년 2학기에는 CJ 올리브네트웍스 대학생 봉사단 'CJ UNIT' 활동으로 지역 소외계층 중학생에게 코딩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블록코딩과 파이썬, 레고 스파이크 프라임을 활용해 직접 코드를 짜고 로봇을 움직여보는 경험을 제공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코딩에 큰 흥미를 보이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지만, 자신이 만든 로봇이 처음 움직이는 순간 아이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특히 평소 무뚝뚝하던 한 아이가 마지막 수업 날, 본인 손으로 만든 로봇의 구조와 코드 흐름을 친구들 앞에서 설명하며 환하게 웃던 모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때 저는 기술이 아이들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키워주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 활동을 통해 교육도, 기술도 결국 '사람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힘'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자신감을 되찾는 순간을 곁에서 지켜보며, 누군가의 성장을 돕는 일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는지 몸소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용자를 향한 기술, 공감에서 출발하다

그 후로 저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 겪는 불편함을 기술로 해결해보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첫 시도로 교내 AI융합학부 IT 경진대회에서 'Drink Select'라는 AI 음료 추천 서비스를 기획했습니다. 당뇨를 앓는 교수님의 일상적 어려움에서 출발한 서비스로, 혈당 수치와 영양 정보를 입력하면 적합한 음료를 추천하는 웹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칼로리·당류·나트륨 데이터를 기반으로 알고리즘을 설계하며, 저는 개발이 단순히 기능을 만드는 작업이 아니라 누군가의 하루에 필요한 선택을 대신 생각해주는 일일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습

니다. 당뇨 환자 커뮤니티에서 예상보다 큰 공감을 얻었고, 교내 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하며 아이디어의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이 경험을 발판 삼아 전국 단위 ICT 융합 공모전에도 도전했습니다. '말로콜'은 고령층이 병원이나 공공기관에 전화를 걸기 어려운 문제에서 출발한 서비스입니다. 어르신들이 음성으로 병원 번호를 찾고 바로 전화가 연결되도록 기획하고, 실제 인터뷰를 바탕으로 UI·UX를 여러차례 개선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웠습니다. 좋은 기술은 복잡한 기능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겪는 어려움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느냐에서 시작된다는 것. 그리고 그 공감의 깊이가 제품의 완성도를 결정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 AI 음료 추천 서비스 'Drink Select'의 알고리즘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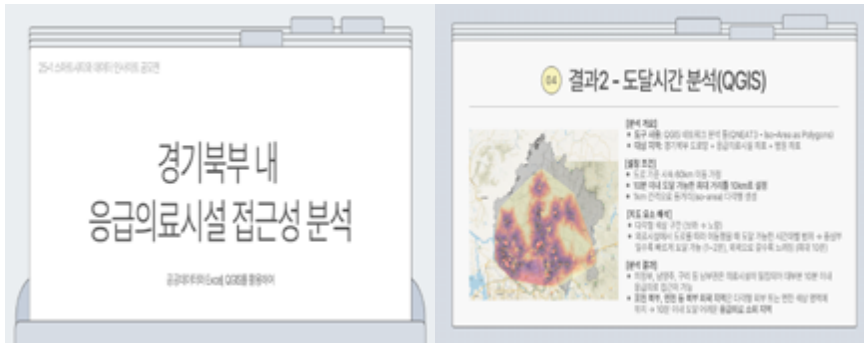
데이터 속에서 사회의 빈틈을 마주하다

교내 데이터 분석 공모전에 참여해 경기북부 지역의 의료 격차를 분석했습니다. 통계학을 복수 전공하며 배운 내용을 한 번쯤은 실제 사회문제에 적용해보고 싶다는 마음에서 시작한 도전이었습니다. 병원 수, 119 구급차 배치 현황, 응급실 도착 시간 등을 살펴보니 지역 간 차이가 매우 컸고, 어떤 지역은 구조적으로 '기다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 존재했습니다. 특히 포천시는 응급의료시설이 거의 없어 지도에서 넓은 공백처럼 보였는데, 그 순간 데이터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그 지역에 사는 누군가의 불안과 위협이라는 사실이 실감났습니다. 그 장면

이 지금까지도 마음에 오래 남아 있습니다.

저희 팀은 지도 기반 프로그램을 활용해 응급 상황에서 10분 안에 도착 가능한 범위를 계산하고, 의료시설 확충이 필요한 지점을 제안했습니다. 학생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었지만, “현실을 조금이라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붙들고 분석을 이어갔습니다. 감사하게도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기쁘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크게 다가온 것은 데이터로 문제를 설명하면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이 실제로 달라질 수 있다는 경험이었습니다. 이때 저는 통계학을 복수전공한 이유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단순한 계산이 아니라, 현실을 더 정확하게 바라보고 근거 있게 이야기하기 위한 공부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경험 이후, 언젠가는 기술과 데이터를 이용해 사회문제 해결에 힘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숫자 뒤에 숨겨진 사람들의 삶을 읽어내고, 그 빈틈을 채우는 방향을 제시하는 일이 앞으로도 이어가고 싶은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응급의료 접근성을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한 프로젝트

낯선 곳에서 태도로 소통하는 법을 배우다

AI 전공을 공부하며 IT 기술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늘 궁금했습니다. 또, 같은 기술이라도 다른 문화권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지 직

접 보고 싶어 2학년을 마친 뒤 해외 IT 기업에서 인턴으로 근무했습니다. Salesforce 기반 모델링, Apex 프로그래밍 등 개발 업무를 맡았지만, 처음 몇 주는 언어도 기술도 모두 낯설어 실수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크게 배운 것은 능숙한 기술보다 태도로 소통하는 법이었습니다. 현지 개발자들의 빠른 말투에 따라가지 못해 회의에서 당황하기도 했지만, 작은 메모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 집중했고, 부족한 언어 실력을 대신해 제스처·표정·메모로 의사를 전달하며 팀과 연결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동료들이 말해준 한마디가 아직도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언어가 완벽하지 않아도, 문화를 이해하려는 네 태도가 팀 분위기를 좋게 만든다.”

이 말은 제가 낯선 환경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하는지 다시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때 만난 개발자들과는 지금도 연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중 한 개발자는 제 학업과 진로 고민까지 함께 들어주며 꾸준히 조언을 건네주었고, 교환학생 준비 과정에서도 실질적인 도움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 관계를 통해 인간적인 태도가 기술보다 더 오래 기억되고, 사람을 연결하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 해외 IT 기업에서 Salesforce 기반 개발

이제 저는 교환학생으로 프랑스 그르노블알프스대학교에서 한 학기를 보낼 예정입니다. AI 연구가 활발한 지역이라는 점도 흥미롭지만, 제가 더 기대하는 것은 다른 문화 속에서 기술과 사

람이 어떤 방식으로 만나고 협력하는지 직접 경험해보는 일입니다. 현지에서 만날 사람들, 함께 하게 될 프로젝트, 그리고 일상 속 작은 배움들을 통해 기술이 실제로 삶에 어떤 변화를 만드는지 더 가까이에서 보고 싶습니다.

방향은 선명하지 않아도, 나만의 속도로 자라가고 싶다.

돌아보면 저는 처음부터 거창한 목표를 세워놓고 달려온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누군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잠시라도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고, 그 마음이 저를 여러 활동 속으로 자연스럽게 이끌었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움직이는 동안, 저는 '내가 어떤 방식으로 세상과 연결되고 싶은 사람인지'를 조금씩 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보낸 시간은 전공 공부만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배우고 살아가야 할지를 스스로에게 계속 묻는 시간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불편함을 덜어주고 싶어 만들었던 서비스, 데이터 속에서 발견한 지역의 공백, 낯선 환경 속에서 태도로 소통하려 했던 경험들. 이런 순간들은 모두 제 청춘을 만들어준 작은 조각들입니다.

아직 모든 방향이 선명하게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요즘은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도 변하지 않는 마음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을 너무 두렵게만 바라보지 않고, 사람에게 먼저 친절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진로 역시 완전히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AI 전공을 살릴지, 새로운 분야를 만나게 될지는 저도 계속 탐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선택하더라도,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현실의 문제에 귀 기울이려는 태도만큼은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아직 3학년이라 앞으로도 실수하고 헤맬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오늘보다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싶은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제가 배운 것들이 누군가의 하루를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드는 데 쓰일 수 있도록 바라고 있습니다. 그 순간을 향해, 저는 제 속도로 천천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성장을 돕는다는 건, 결국 서로의 가능성을 함께 넓혀가는 일이다.

멘토 이수빈

멘티 김나경, 김지아, 송희정, 김지아

1. 멘토링 목표

- 멘티가 전공, 진로 선택에서 스스로 판단 기준을 세울 수 있도록 방향 제시
- 대학 생활, 비교과, 학업 관리 등 실제 경험 기반의 현실적인 정보 제공
- 실행 가능한 계획(로드맵·주간 목표·학습 전략)을 통해 자기관리 능력 향상 지원
- 멘티의 고민을 충분히 듣고, 부담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상담 환경 형성

2. 주요 활동 내용

- 멘티의 현재 학업·진로 고민 파악 후 맞춤형 로드맵 구성
- 전공 탐색, 비교과 추천, 교내 프로그램 활용법 등 실질적인 대학생 활 가이드 제공
- 자기소개서·지원서·대외활동 등 글 작성 피드백
- 고민 상담 및 멘탈 케어를 통해 대학 생활 적응 전반을 돕는 역할 수행

3. 활동 사진



맞춤형 진로 멘토링



커리어 로드맵 만들기



AI FESTA, 창업박람회 참석



진로 특강 세미나 시청

4. 멘토 소감

멘티의 고민을 충분히 듣고 선택의 기준을 함께 만드는 과정이 멘토링의 핵심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후배의 성장을 곁에서 지켜보며 저 역시 제 진로를 다시 돌아보는 귀한 시간을 얻었습니다. 누군가의 가능성을 넓히는 일이 제 가능성도 함께 확장시킨다는 사실을 또 한 번 깨달았습니다.

5. 멘티 소감

멘티 김나경(바이오헬스서비스학과)

평소 복수전공과 진로에 대해 고민이 많았는데, 멘토님의 실질적인 조언 덕분에 궁금했던 점들을 자연스럽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맞는 방향성을 함께 찾아가며 앞으로 어떤 길을 선택하고 싶은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비교과 활동도 하나씩 시도해보자는 용기를 얻었고, 이 멘토링이 저에게 새로운 도전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멘티 송희정(수리통계데이터사이언스학부)

멘토링을 통해 막연하던 진로 생각을 보다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진로검사 해석부터 로드맵 작성, 박람회·도서 탐색까지 함께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제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시며 실천 가능한 방향을 제시해주셔서 앞으로의 선택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이번 활동은 대학 생활을 계획하는 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3

인생이라는 작품 속 나만의 서사를 찾아가는 여정



이소정

수리통계데이터사이언스학부(21학번)

들어가며

대학 입학 후 저는 수많은 선택 앞에 서 있었고 무엇이 옳은 길인가에 대해 고민해왔습니다. 남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막연한 압박감과 더불어 한편으로는 진정한 '나'로 살고 싶다는 마음이 끊임없이 저를 흔들었습니다. 결국 방향을 잡지 못한 채 뒤쳐지고 싶지 않다는 생각으로 뭐라도 열심히 하다 보니 어느 순간 저는 삶의 중심을 잃고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혼란의 시간은 오히려 저를 더 깊은 자기 이해의 여정으로 이끌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무엇을 좋아하는가?', '왜 살아가고 싶은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인생에 정답은 없다는 것, 그리고 '나만의 서사'를 찾아 나아가는 것이 결국 옳은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글은 엑스트라처럼 자아 없이 열심히만 살아가던 삶에서 벗어나고 스스로 인생의 주체성을 가진 주인공이 되기까지 겪은 도전과 성장을 담은 기록입니다. 누군가의 눈에는 작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제게는 인생의 나침반을 찾게 된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이 글이 같은 고민을 하는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와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나만의 나침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엑스트라의 도전

입학 전의 저는 소심하고 주변의 눈치를 많이 보던 정말 평범한 엑스트라와 같았습니다. 뚜렷한 꿈도, 두드러지는 재능도 없었고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주변의 시선이 두려워 쉽게 도전하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학생이 되고 새로운 사회를 마주한 저는 해방감과 함께 적어도 대학생활 만큼은 후회없이 하자

는 마음으로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코로나로 등교조차 힘들었던 시기였지만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학과 학생회 기획국원으로 활동도 하며 용기를 내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이 도전은 학생회 운영 전반에 더 깊이 관여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어졌고 2학년이라는 이례적인 시기에 제1대 수리통계데이터사이언스학부 부학생회장으로 당선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이후 처음 열리는 대면 행사 준비, 신생 학부의 기반을 다져야 한다는 책임감, 끊임없이 이어지던 행사 운영의 무게까지 어느 하나 가벼운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그 과정에서 사람들과



▲ 수리통계데이터사이언스학부 학생회 '포럼'

협력하는 법, 서로의 차이를 장점으로 바라보는 법을 배우며 리더로서의 시야를 넓혀갑니다. 끝없는 해야할 일들을 쳐내느라 바쁜 저의 모습을 보면 주변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산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저는 스스로를 몰아붙이며 점점 '나'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방향을 찾기 위한 방향

어머니께서는 늘 “마무리가 가장 중요하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처럼 후회하지 않기 위해 학업과 더불어 학생회 활동, 중고등부 봉사동아리 대표 지도자, 아르바이트까지 모든 일을 끝까지 책임지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 1년 간의 학부 부학생회장을 무사히 마쳤고 우수 동아리상, 우수 지도자상까지 수상했기에 지금도 끝까지 해내는 것에 대해서는 후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쁘게 지낼수록 제 삶에서 '나'라는 중심이 사라지고 수많은 일이 저를 끌고 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멋있는 갓생러'라며 좋게 봐주었지만 정작 저는 그저 이 모든 것이 끝나기를 바라며 버텨를 뿐, 한 번도 스스로를 깊이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사는가'라는 의문과 함께 이대로 살면 앞으

로도 불행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속도를 줄이고 누군가는 중학생, 고등학생 때 마쳤을지도 모를 자기 이해를 3학년이 지나서야 시작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언제 가장 행복한가?' 등의 나를 알 수 있는 질문이 담긴 자기 이해 질문지를 직접 정리하고 답을 적어보기도 했습니다. 물론 깊이 있는 내면의 목소리를 찾는 것은 생각보다 정말 쉽지 않았고 때로는 답을 찾기도 어려웠으며 확신이 들지 않아 몇 시간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관련 서적, 영상, 상담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활용하여 배우고 시도하며 나를 알고자 노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로부터 삶의 중심을 찾아가는 시간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쉽진 않더라도 이것이 바로 성장통의 본질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깨달은 후로는 아직 알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지만 적어도 나를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태도를 갖게 되었습니다.



▲ 자기이해를 위한 자체 문답지

성장통으로부터 찾은 나만의 서사

3학년을 마친 뒤, 그동안 바쁘게 살며 미뤄두었던 '본질적인 나'에게 더 집중하고 알고 싶어 휴학을 결정했습니다. 물론 속도를 줄였다 해도 사람이 단번에 달라지기란 쉽지 않았고 휴학 후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불안한 탓에 다시 바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자기 이해와 진로 고민을 놓지 않았고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인재개발팀에서 행정인턴으로 근무하며 다양한 진로 정보와 컨설팅을 가까이에서 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획, 디자인, 마케팅, 데이터 분석 등 여러 진로를 직접 탐색할 수 있었습니다. 나에게 맞는 방향을 찾아가기 위해 비교과 성향 테스트, 현직자 멘토링, 직무 부트캠프 참여, 그리고 공모전 출품과 데이터 분석 자격증 취득까지—'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기회가 있다면 무엇이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시 바쁘게 살다가 휴학의 막바지에 이르러 문득 '아차' 싶은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남들처럼 진로를 빨리 정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대학 생활 동안 해온 활동에 맞춰 억지로 제 진로를 끼워 맞추고 있던 것이죠. 결국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처음부터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본사 탐방 및 현직자 멘토링

그렇게 다시 본질로 돌아가고자 하던 중, 한 조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했는지 떠올려보세요.” 방을 정리하다가 초등학교 때부터 보관해온 손편지와 그림들이 담긴 상자를 발견했을 때, 저는 그 말의 의미를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먼지가 쌓였던 상자를 살펴보니, 어릴 적 저는 누가 시

키지 않아도 쉬는 시간마다 그림을 그리고, 친구 생일에는 책 한 권 분량의 손편지를 만들어 선물하곤 했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제대로 미술을 배운 적 없었기에 잘 그린 그림은 아니었지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쉬는 시간이 되면 항상 그림을 그렸고, 친구 생일 편지를 책 한 권으로 만들어 줄 만큼 누군가에게 정성을 담아 선물하는 일에 진심이었던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요복(YOBOK), 나만의 서사를 위한 첫 작품

마침내 저는 제가 진심으로 좋아하는 일과,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정성과 진심을 전할 수 있는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창업은 멀고 어려운 영역이라고만 생각했지만, 캐릭터 IP 창업에 성공한 선배의 사례를 보며 ‘나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대학이라는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진심으로 원하는 일에 도전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나만의 방향과 목표를 찾은 후로는 꿈을 실현하기 위해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48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 8주간 캐릭터 수익화 워크숍에 참여했고, 그곳에서 저만의 캐릭터가 탄생했습니다. 저의 취향과 가치관, 그리고 마음을 담아 직접 만든 첫 작품이었습니다. 브랜딩을 배우며 깨달았습니다. 브랜드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의 이야기에서 시작되는 것이라는 사실요.

이후 교내 창업지원센터에서 행정 인턴으로 근무하며 창업 관련 실무 조언과 프로그램 지원을 가까이에서 얻을 수 있었고, 창업동아리 활동, 외부 멘토링, 브랜딩 공부 등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나만의 서사가 담긴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그 여정 끝에, 저만의 브랜드 ‘요복(YOBOK)’이 탄생했습니다. 슬로건 “Glow in your book”은 “인생이라는 작품 속에서 성장하는 이들의 이야기는 그 자체로 이미 빛나고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성장통을 겪는 모든 이들에게 보내는 위로이자, 방향의 시기를 지나온 과거의 저에게 가장 전해주고 싶던 말이기도 합니다.

진심을 담아 만든 슬로건과 브랜드 철학은 많은 분들에게 공감을 얻었습니다. 창업 장학금을 수혜받고, 저의 오랜 버킷리스트였던 학교 축제 플리마켓에 선정

되어 직접 브랜드를 소개하고 소비자들과 소통하는 기회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요복(YOBOK)은 단순한 창업 결과물이 아니라, 방향 속에서 '진짜 나'를 발견한 끝에 탄생한 제 서사의 첫 작품입니다.



▲'요복(YOBOK)' 브랜딩

엑스트라가 아닌 나만의 서사를 지닌 주인공으로

지금의 저는 더 이상 타인의 기준에 맞춰 움직이는 엑스트라가 아닙니다. 내가 옳다고 믿는 방향을 따라 나아가고, 나의 감정과 욕구를 들여다보며 스스로의 서사를 만들어가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요복(YOBOK)을 만들며 "자신만의 이야기를 가진 사람이 가장 진실되고 단단하다"는 사실을 배웠고, 그 이야기를 브랜드라는 형태로 세상에 표현하는 법도 조금씩 익혀가는 중입니다.



▲운정캠퍼스 대축제 플라마켓 참가

앞으로도 저는 나만의 서사를 위해 배우고 성장하며, 진심이 담긴 꿈을 이뤄가기 위해 계속 걸어갈 것입니다. 물론 이 길 역시 처음 도전하는 여정이기에 예상치 못한 성장통을 여러 번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미 2025년에 창업을 마음먹은 후 혼자 모든 것을 도전해보면서 정말 여러 번 번아웃이 오곤 했습니다. 하지만 성장통은 아프고 버겁더라도 결국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임을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비

로소 '인생이라는 작품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요.

방향 끝에 찾아낸 지금의 방향성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새로운 제 모습을 계속 발견할 것이고, 자기 이해의 여정은 끝없이 이어질 것입니다. 때때로 다시 흔들리거나 길을 잃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나만의 방향을 찾는 방법'을 알기에 그 방향이 두렵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또 하나의 성장통이 되어 저를 더 깊고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쌓여가는 경험과 배움은 결국 누구도 따라 할 수 없는 '나만의 서사'를 완성해갈 것이기에, 저는 앞으로도 계속 나를 탐색하고 도전해 나갈 것입니다.



▲미래여성경제인육성사업 수여식

혼자서 방황하던 과거, 함께하며 방향을 찾다

멘토 이소정

멘티 안가연, 임수진, 이지우, 조하늘

1. 멘토링 목표

-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알고 나만의 목표를 정할 수 있도록 지원
- 나만의 목표에 대한 실현방안 설계
- 과거와 앞으로의 활동을 정리하기 위한 포트폴리오 정리법 공유 및 개별 피드백 제공
- 멘티의 니즈를 파악하고 이에 도움되는 대학생활 정보 제공

2. 주요 활동 내용

- 자기이해 멘토링 - 멘토의 '자기이해 질문지'를 통해 나에 대해 깊이 알기
- 목표 설계 멘토링 - 자기이해를 바탕으로 나만의 목표 설정 및 실행 방안 설계
- 경험정리법 멘토링 - 멘토의 '포트폴리오 노션 템플릿'을 통한 경험 정리법 공유 및 개별 피드백
- 멘티 니즈에 따른 활동 수행 - '313' 챌린지를 통한 SNS 기록 습관화, 진로탐색을 위한 취업박람회 참가

3. 활동 사진



자기이해 문답지를 통해 나에 대해 알기



기록 습관 '313' 챌린지 실행



서울시 일자리 박람회 참석



포트폴리오 정리 피드백

4. 멘토 소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 길로 향하는 나만의 서사를 찾는 것'임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빨리 깨닫지 못했던 것이 막학을 보내는 선배로서 가장 후회하는 부분이었기에 멘티들에게 이것을 전하고 함께 도울 수 있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5. 멘티 소감

멘티 임수진(심리학과)

대학 입학과 동시에 시작했던 '나'에 대한 고민을 끝없이 이어오던 중 이제는 무언가 확실한 결론을 내야 할 때가 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때 만나게 된 성장통 멘토링 프로그램과 소정님과 멘토링 시간은 제게 촉발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은 자기이해 질문지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작성하면서도, 작성 후 멘토님과의 깊은 대화를 통해 저조차도 인지하지 못했던 저에 대한 모습과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얻은 부분들을 기반으로 포트폴리오까지 정리하니 윤곽이 잡히는 느낌이었습니다. 대학 생활을 하면서 꼭 얻어야 할 부분들을 가까운 곳에서 좋은 분들과 귀중한 기회를 통해 배울 수 있어 의미가 컸던 만남이었습니다.

멘티 안가연(경영학과)

성장통 멘토링을 통해 대학 생활 초반의 막연한 고민들을 정리하고 스스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이해 질문지와 목표 시각화 활동을 통해 제 강점과 진로 방향을 명확하게 잡을 수 있었으며, 313 기록 챌린지와 경험 아카이빙은 저만의 정리 습관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포트폴리오 피드백을 바탕으로 실제 진로 준비의 기반도 탄탄히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멘토링은 앞으로의 대학 생활과 진로 탐색을 더 자신 있게 이어갈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4

출발선, 그리고 워밍업의 시간



추서연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23학번)

들어가며

제게 대학생활은 늘 미지의 길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앞길이 스스로의 선택으로 결정된다는 사실이 두렵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신입생 때까지만 해도 “내가 과연 이 길을 가도 될까?”, “시도해도 괜찮을까?”라는 망설임이 앞섰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마음 한편에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나아갈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세상에 저를 드러내고 싶다는 열망이 자연스럽게 생겨났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하고 싶었던 일들에 하나씩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연합동아리 활동, 대외활동, 공모전 참여 등 다양한 경험을 쌓으며 “모든 경험에는 의미가 있다”는 말을 조금씩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쌓인 경험들은 자연스럽게 제가 사람들과 함께하는 행사와 문화, 공연을 기획하고 싶다는 꿈으로 이어졌습니다. 아무런 계획 없이 뛰어들었던 길이었지만, 오히려 그 안에서 스스로의 해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좋아하는지”, “어떤 순간에 가장 진심이 되는지”가 조금씩 선명해졌습니다.

어느덧 대학생활 3년 차에 접어든 지금, 아직 갈 길은 멀어 보이지만 오히려 이제서야 ‘제대로 된 시작선’ 앞에 선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동안의 망설임과 두려움은 출발선 전의 준비 시간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달리기 전에 필요한 워밍업처럼요. 좋은 여정을 위해서는 준비운동도, 심호흡도, 결의 사람들과 눈을 맞추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출발선 앞의 시간을 두려워할 필요도, 언제쯤 그 앞에 설지 불안해할 이유도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앞으로 저는 얼마나 더 많은 출발선을 마주하게 될까요? 지금은 단지 그중 하나일 뿐일 것입니다. 그래

서 제 앞에 펼쳐질 삶이 더욱 기대됩니다. 그럼 이제, 제가 출발선 이전에 걸어왔던 '워밍업의 시간'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함께 만드는 가치, <결에>를 쓰고, 찍고, 만들고.

지난해 5월, 전공 수업인 <영상미학>을 수강하며 처음으로 영상 제작을 경험했습니다. 10분짜리 영화 따라 찍기, 15분짜리 단편영화 제작까지, 이전엔 상상만 했던 영역이었지만 새로운 분야에 대한 호기심으로 과제에 뛰어들었습니다. 촬영 장비 사용, 시나리오 작성, 연기, 편집까지 모든 과정은 낯설고 어려웠지만 팀원들과 매일 회의하며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가는 것은 보람찼습니다.

저는 시나리오 작성과 배우 역할을 맡아 작품 제작에 참여했습니다. 단순히 영상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팀원 각자가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의 작품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이 큰 성취감을 주었습니다. <결에>라는 단편영화는



제게 "함께 만드는 창작물"이 얼마나 큰 힘을 갖는지 알려준 첫 경험이었습니다. 이때 느낀 협업의 가치와 성취감은 제 진로에 자연스럽게 영향을 주었고, 콘텐츠와 행사 기획을 더 깊이 고민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환상적 여름, 2024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비판 히어로즈>

영상미학 과제 이후 자연스럽게 단편영화와 독립영화 분야에 관심이 생겼고, 실제 현장을 더 가까이서 보고 싶어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자원봉사자 '비판 히어로즈'에 지원했습니다. 행사팀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며 관객 안내, 행사장 정리, 긴급 상황 대응 등 다양한 업무를 맡아, 콘텐츠가 관객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체력적으로도 쉽지 않았지만, 팀원들과 호흡을 맞추며 어려움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특히 관객들이 영화제를 즐기며 웃고 대화하는 모습을 보며, 제가 이 축제의 일부가 되었다는 감각을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봉사는 단순히 타인을 돕는 일을 넘어,

스스로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활동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며 자연스럽게 사회적 역량도 성장했고, 자아 효능감 역시 높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이 경험은 영화제 활동을 더 이어가고 싶다는 마음을 만들어주었고, 동시에 제가 타인과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큰 힘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게 해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발표를 통해 나를 찾아가다, 대학생 연합 발표 동아리 <CrePAS>에서의 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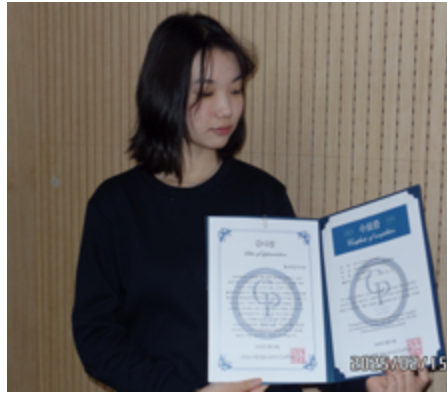
첫 대외활동 이후, 저는 외부에서 더 많은 경험을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 앞에서 말할 때 느끼는 성취감이 컸기 때문에, 꾸준히 발표할 수 있는 공간을 찾던 중 대학생 연합 발표 동아리 'CrePAS'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수업에서 발표를 즐겨 하던 제게 이 활동은 꼭 해보고 싶은 도전이었습니다.

'CrePAS'에서는 2주마다 '나'라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처음에는 스스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어색하고 어려웠지만, 점차 자신을 돌아보고 진솔하게 표현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부원들에게 "너만의 색깔이 있다", "서연이만의 발표다"라는 피드백을 듣고, 가장 독보적인 것은 결국 '나다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발표를 준비하며 청중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콘텐츠를 고민했고,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식까지 스스로 실험해보며 콘텐츠 기획과 발표 역량도 함께 성장했습니다.

활동이 끝난 후에도 이 경험을 이어가고 싶어 바로 다음 기수 임원진으로 참여했습니다. 제가 맡은 역할은 '홍보부장'으로, 다양한 디지털 홍보물을 제작하며 디자인 역량을 키웠습니다. 동아리의 기록을 남기고 스토리를 만드는 작업은 단순한 홍보를 넘어 의미 있는 창작 과정이었고, 기획한 콘텐츠를 직접 구현하며 큰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CrePAS'에서의 1년은 제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 곧 나만의 개성을 드러내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발표와 홍보 활동을 통해 자신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자신감이 생겼고, 협업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콘텐츠를 만드는 즐거움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은 새로운 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고, “가장 나다운 것이 가장 독보적인 것이다”라는 믿음을 제 안에 단단히 자리 잡게 만들어주었습니다.



기획자로서의 한 걸음, 다양한 콘텐츠 제작

콘텐츠 제작에 흥미가 커지면서, 저는 점차 나만의 이야기를 직접 콘텐츠로 만들어보고 싶다는 바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대외활동에 도전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직접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해볼 수 있었던 경험들은 제게 특별한 의미로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 경험은 ‘스트로 컬처메이트 서포터즈’ 활동이었습니다. 문화예술 기록 플랫폼 ‘스트로’에 매주 여러 차례 포스팅을 업로드하는 역할을 맡으며, 제가 즐겨 하던 전시·공연 관람을 자연스럽게 콘텐츠로 풀어낼 수 있었습니다. 글과 이

미지를 조합해 하나의 기록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일상의 취향을 이야기로 전환하는 일’이 얼마나 즐거운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깊어지면서 ‘아르코 썸 페스타 서포터즈’에도 도전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기록을 넘어서, 직접 현장을 경험하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전국에서 열리는 여러 문화예술 축제를 취재해 기사, 사진, 영상 등 다양한 형식의 콘텐츠로 제작했는데, 현장에서 느낀 분위기와 감정을 어떻게 담아낼지 고민하는 과정 자체가 제게 큰 배움이 되었습니다. 쉽



게 접하기 힘든 공연을 조사하고 기록하며, 문화예술을 바라보는 제 시야도 한층 넓어졌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단순한 대외활동을 넘어, 제가 왜 콘텐츠를 만들고 싶은지, 어떤 순간에 가장 진심으로 몰입하는지를 보여준 시간이었습니다. 기록을 통해 이야기를 남기고, 경험을 콘텐츠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저는 기획자로서 한 걸음을 내딛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무대 위의 찰나를 사랑하는 법, 연극학회 오락실

이제 저는 한 발자국 더 나아가, 제가 주체가 되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능동적인 활동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일을 찾았습니다. 여러분은 대학생활 중 가장 낭만 넘치는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단연코 ‘연극동아리’라고 생각합니다. 몇 달 동안 함께 쌓아 올린 작품을 무대 위에서 관객에게 전달하는 순간의 감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짜릿하기 때문입니다.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연극학회 오락실에 입부하게 된 계기는, 한 번쯤 ‘연기’라는 것을 경험해보고 싶다는 마음에서였습니다. 분명 제 안에는 연기에 대한 씨앗이 있었기에 눈 딱 감고 도전했고, 결국 배우 역할로 활동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 학회 정기공연 〈이번 정거장은 환생입니다〉를 준비하면서 저는 연극과 무대의 세계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연습 과정, 피드백, 함께 웃고 울던 시간들까지 모든 순간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특히 공연 직전 무대 뒤에서 느꼈던 감정은 잊을 수 없습니다. 터질 것만 같은 심장, 온 몸의 모든 세포가 지금 이 순간에 몰입하고 있는 느낌, 당장이라도 날아오를 것만 같은 기분, 그리고 정말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강한 확신까지. 그 감정은 지금 생각해도 벅칩니다. 이 경험은 더 큰 도전으로 이어졌습니다. 2025년에는 학회장을 맡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학회장은 공연의 안팎에서 모든 과정을 조율하는, ‘공연 기획자’ 역할을 해야 했기에 책임감이 막중했습니다. 해야 할 일이 많아 버겁기도 했지만, 함께하는 학회원들을 믿었고, 무엇보다 공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저를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도왔습니다.

올해 준비한 공연 〈빛은 하루에도 네 개의 얼굴을 한다〉에서는 더 큰 도전을 이어갔습니다. 난생 처음 긴 분량의 극본을 직접 쓰고, 스스로 만든 캐릭터를 연

기했으며, 공연 홍보와 기획까지 맡았습니다. 공연의 시작부터 끝까지 전 과정을 직접 준비하면서 저는 이 일을 정말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거창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연습과 준비가 쌓여 무대로 완성되는 것이 뿌듯했고,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제게 큰 에너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루하루의 설렘이 자연스럽게 “앞으로도 이런 일을 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어졌습니다. 꼭 무대가 아니더라도, 누군가의 목소리를 세상에 전하고, 의미를 가진 이야기를 기획하고, 현장의 생생함을 기록하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다는 바람 말입니다.

공연은 어떻게 끝났냐고요? 물론 잘 마쳤습니다. 몇 달의 고민과 고뇌가 하나의 절정으로 흘러넘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특히 무대 뒤에서 마지막 장면만을 남겨둔 채 숨죽이며 기다리던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끝나간다는 아쉬움, 잘 해냈다는 후련함, 이 시간이 정말 소중한다는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 순간을 온몸으로 느끼며 공연의 모든 장면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그래서인지 지금도 무심코 눈을 감으면 당시의 무대 뒤 공간이 눈앞에 생생히 떠오르곤 합니다. 돌이켜보면, 이번 공연을 완성할 수 있었던 힘은 이전의 모든 경험에서 온 것 같습니다. 함께 창작하며 생기는 시너지에 대한 믿음, 스스로를 깊이 들여다보고 표현하고자 했던 열망, 다양한 대외활동을 통해 쌓아 온 콘텐츠 제작 역량, 그리고 좋은 기획을 위한 끝없는 고민까지. 이 모든 경험들이 모여 지금의 공연을 만들어주었고, 공연은 다시 한 번 새로운 저를 만들어주었습니다.



이제는 더 큰 무대에서 더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전하고, 문화와 이야기를 기획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꿈이 선명해졌습니다. 오락실에서의 시간은 단순한 활동이 아니라, 제 진로와 정체성을 찾게 해준 결정적 경험이었습니다.

신호탄을 기다리며

대학생이 된 지 어느덧 3년. 이제서야 제 삶이 조금은 준비되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비로소 제가 주체가 되어 살아갈 시간이 눈앞에 펼쳐져 있다는 사실이 또렷하게 느껴집니다. 지금이라는 시기가 제게는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여전히 불안하고, 서툰고, 어려운 것들로 가득합니다. 그래도 이제는 모든 과정을 기꺼이 견뎌보고 싶습니다. 그 시간을 지나고 나서 어떤 새로운 모습으로 성장해 있을지 스스로도 궁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살아가려 합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나만의 방향을 찾아낼 것이라는 것도, 제가 사랑하는 것들과 함께라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으니깐요. 워밍업은 끝났습니다. 곧 신호탄이 울리겠죠. 그 순간이 오면 저는 망설이지 않고 힘차게 달려나갈 겁니다. 제가 나아갈 여정을 지켜봐주세요!

멘토 추서연

멘티 김수인, 전영재, 신채민, 이나연

1. 멘토링 목표

- 멘티 안에 숨겨진 잠재력을 멘토와 함께 찾아가는 여정
- 다양한 경험을 통해 취향과 '나다움'을 발견하기
- 멘티의 목표와 관심사에 맞춘 개별 맞춤형 멘토링 제공
- 멘토 사례를 공유하며, 활동 준비 과정과 진로 탐색, 자기 개발 방법 등 실질적인 지원

2. 주요 활동 내용

- 멘토 경험과 취향·감정 공유를 통한 자기 이해와 탐색
- 문화예술 활동 기반 취향 찾기 프로젝트 및 콘텐츠 제작
- 희망 직무 및 회사 자기소개서 분석, 진로 커리어맵 테스트
- 미래 진로 로드맵 설정과 교내·대외 활동 연계
- 활동 경험을 활용한 자체 콘텐츠 제작

3. 활동 사진



연극 <세컨트 액트> 관람 및 창작 활동(인생 2막을 주제로 대본 작성, 포스터 제작)



SK하이닉스 자소서 분석



과천국립현대미술관 관람 및 전시 콘텐츠 제작

4. 멘토 소감

이번 멘토링은 멘티-멘토 모두 '나'에 대해 탐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나'를 먼저 이해해 보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멘토링은, 멘티들에게 제가 겪었던 시행착오와 해결법을 전달하는 것을 시작으로 '나'를 이끌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함께하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멘티들은 물론 저조차도 잊고 스스로에 대해 깊게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제게 이번 멘토링은 분명 함께 만들어 낸, 성장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5. 멘티 소감

김수인(사학과)

멘토와 진로를 찾아가는 활동을 하며 나에 대해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성장한 점과 보완해야 할 점을 생각하며 앞으로의 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고, 멘토링을 통해 진로에 더욱 가까워져 의미있었습니다.

신채민(일본어문·문화학과)

멘토링 활동을 통해 나 자신도 잘 몰랐던 부분을 발견하거나 새로운 경험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계획을 짜는 것부터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데까지 멘토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 과정 자체를 배울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멘토링을 통해 나만의 길을 찾아가는 방법을 알 수 있어서 매우 유익한 활동이었습니다.

5

한번의 용기, 수많은 도전 : 나를 찾아가는 대학 생활



이다혜
소비자산업학과(23학번)

들어가며

사회에서는 대학 생활을 흔히 ‘성장하는 시기’, ‘성장을 위한 발판’, 혹은 사회로 나아가기 전 마지막 준비 단계로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대학생 때 할 수 있는 ‘성장’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수기집을 읽는 여러분은 어떤 성장을 기대하며 대학에 들어왔나요?

사실 대학에 입학할 때 막연한 목표는 있어도, 무엇을 이루게 될지, 어떤 사람으로 성장할지는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저 역시 1학년 때 “이 전공이 나에게 맞을까?”, “스펙을 쌓아야 한데 무엇부터 해야 하지?”라는 질문 속에서 방향의 시기를 보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정답을 찾으려 애쓰기보다, 마주한 모든 경험들이 자연스럽게 저를 성장하게 했습니다.

하고 싶은 공부를 해보자!

성신여자대학교에 입학한 후, 저는 진로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새내기 생활이 기대되고 설렘이었지만, ‘졸업 후 나는 어떤 일을 하게 될까?’, ‘그 일을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하는 질문들이 늘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누구도 대신 답을 내려줄 수 없었기에, 저는 지금 하고 싶은 활동부터 해보자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고등학생 때부터 영어를 좋아했던 저는 ‘언젠가 글로벌 시장에서 일해보고 싶다’는 작은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학년 1학기 ‘공통 영어 스피치와 프레젠테이션 I’ 수업을 들으며, 단순히 문법보다 영어로 말하고 소통하는 능력을 키우고 싶다는 점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이후 회화 실력을 기르기 위해 영어 회화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화상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1년 동안 캐나다·미국 등 다양한 국적의 선생님들과 시사 이슈를 주제로 토론하며, 주 2회 꾸준히 제 생각을 영어로 표현하는 연습을 이어갔습니다. 매주 두 번씩 이어진 이 경험은 제게 '영어는 용기를 내면 더 가까워지는 언어'라는 자신감을 주었고, 덕분에 2학기 영어 수업에서는 교환학생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하며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회화 공부가 제가 하고 싶은 것을 시도해보았던 첫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단기 어학 연수 도전

영어 회화 공부를 계기로 언어에 흥미가 생기면서, 일본어도 직접 현지에서 배우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일본어문·문화학과로 입학해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있던 덕분에, 자연스럽게 일본에서의 어학 연수를 떠올리게 되었고 교내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지원해 여름 방학 약 한 달 동안 오사카 간사이대학교에서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수업은 중국, 홍콩, 캐나다, 베트남 등 여러 국적의 학생들과 함께 진행됐습니다. 일본인 학생이 없는 반이었지만 모두 일본어로 대화하며 수업을 이어갔다는 점이 무척 흥미로웠습니다. 언어 실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각을 마주할 수 있었던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연수를 마친 직후,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주관한 '한일 공동 고등교육 유학생 교류사업' 행사에서 MC를 맡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한·일 학생 간 인적 교류와 문화적 이해 증진을 목표로 한 자리였으며, 저는 'K-문화'를 주제로 한 세션을 진행했습니다. 일본어로 행사 대본을 직접 작성하고 반복해서 연습하며 준비했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진행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학생들이 한국 전통 놀이를 접목한 게임을 즐기며 "한국 문화를 정말 재미있고 색다르게 경험했다"고 말해주었을 때,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한 다양한 도전

단기 연수에서 현지 학생들의 큰 도움을 받았던 경험은, 성신여대에 오는 국제 학생들에게도 좋은 추억과 의미 있는 경험을 선물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마음으로 저는 약 1년 동안 국제학생회 SISA에서 부회장으로 활동하며 다양한 국제 교류 활동을 기획했습니다. 특히 기존 행사보다 규모를 확장해 더 많은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와 운영을 주도했습니다. 그 결과 올해 1학기 '성신 글로벌 페스티벌'에는 약 470명의 재학생과 국제 학생이 참여했고, 몽골, 일본, 베트남, 터키 등 8개국의 국제 학생들이 문화 부스를 운영하며 활기로운 교류의 장이 되었습니다.

또한 국제 학생들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돕고자 글로벌 프렌즈 버디·튜터링 프로그램에도 참여했습니다. 외국인 보험 가입, 은행 계좌 개설, 휴대폰 개통 등 예상보다 복잡한 행정 절차를 하나씩 함께 해결하며, 그들의 적응 과정이 훨씬 수월해지는 것을 보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경험 덕분에 저는 글로벌 환경에서 꿈을 펼치고 싶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고, 내년에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위치한 대학교로 교환학생을 떠날 예정입니다.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하며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하고자 합니다.



사회로의 첫 걸음, 봉사활동

생각보다 빠르게 지나가는 대학 생활 속에서 "대학생다운 무언가에 도전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러 활동을 고민해보았지만, 그중에서도 봉사를 선택한 이유는 제가 그동안 사회에서 받았던 수많은 도움과 따뜻한 나눔들을 다시 누군가에게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막상 어떤 봉사를 해야 할지 몰라 고민하던 중, 자연스럽게 떠오른 것이 어르신 지원 봉사였습니다. 저는 외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겪는 어려움을 가까이에서 봐왔습니다. 건강이 나빠지는 것보다도 '외로움' 때문에 더 큰 아픔을 겪는 모습, 그리고 그런 할머니 곁에서 친구처럼 말동무가 되어 드리며 잠시나마 웃음을 되돌려드린 경험은 제게 매우 특별한 추억입니다. 이 경험이 있었기에, "나도 다른



어르신들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약 1년 동안 용인시 자살예방센터에 등록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대면 방문, 전화, 문자 안부를 전하는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찾아 뵙고 건강 상태와 생활

변화를 확인했으며, 활동 후에는 담당 전문가에게 보고서를 제출하며 어르신의 정서 상태를 공유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기만 했지만, 어느 날 어르신께서 손을 잡으며 “이야기를 들어줘서 고맙다”고 말씀하셨던 순간을 잊지 못합니다. 작은 관심과 짧은 대화가 누군가에게는 하루를 견디게 하는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이 활동은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 ‘나도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될 수 있구나’라는 확신을 준 사회로의 첫 걸음이었습니다.

교내 '지역 사회 기여 프로그램' 기획하고, 실행하기

언어 공부와 여학연수 경험을 통해 외국어의 즐거움을 느낀 저는, 이를 지역 사회 아이들과 공유하고 싶어 교내 지역 사회 기여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7명의 팀원과 함께 ‘페라페라’라는 팀을 꾸려 일본어 교육과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아이들이 쉽게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오마모리(부적) 만들기, 일본 전통 여우 가면 만들기, 후우링 만들기 등 만들기 중심 활동을 구성했고, 지도교수님과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프로그램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약 4개월의 준비 끝에 우리동네 키움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아이들이 “처음 배워보는 일본어가 재미있다”며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어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 활동을 계기로 지역 사회에 관심이 생겨 교내 비교과 프로그램인 ‘로컬액션 챌린지: 성북을 바꾸는 아이디어 발굴단’에 약 5주간 참여했습니다. 공정관광 팀의 일원으로서 성북구 정릉 지역을 집중적으로 탐색했고, 책을 매개로 한 로컬 문화 행사를 기획하여 ‘성북구 북파티’를 콘셉트로 한 기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기획은 올해 교내 지역 사회 프로그램으로 확장되어, 실제 실행까지 이어졌습

니다. 정릉 로컬 플라마켓 ‘개울장’과 연계하여 행사에서는 독서존을 비롯해 책을 매개로 한 ‘책처방 부스, 굿즈 부스 등’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주민과 대학생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2차 프로그램으로는 우리동네 키움센터 아이들과 함께 ‘책과 함께하는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1차 프로그램이었던 <칠링정릉> 북파티의 흐름을 이어, 크리스마스 관련 도서를 함께 읽고 독서 퀴즈를 진행하며 책에 대한 흥미를 높였고, 크리스마스 무드등 만들기 체험으로 프로그램을 마무리했습니다. 1차 프로그램이 지역 공간과 주민을 연결했다면, 이번 활동은 책과 문화가 지역 아이들의 일상 속으로 스며드는 경험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전과, 그리고 기업과 함께한 소비자 실습 활동

일본어문·문화학과였지만 복수전공으로 소비자산업학과 수업을 듣는 과정에서 시장 경제와 소비자 중심 경영에 큰 흥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기업 분석과 가계 예산안 작성 등 실습형 과제를 하며, ‘사람들의 소비 행동이 사회를 어떻게 바꾸는가.’라는 질문에 매력을 느꼈습니다. 더 깊이 배우고 싶다는 마음은 전과 고민으로 이어졌고, 주변에서 복수전공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했지만 저는 주전공이 주는 몰입도와 학과 참여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선택한 공부’를 중심에 두고 싶었습니다. 전과 후에는 사회적 기업 (주)동행과 함께하는 소비자 중심 실습 프로그램에 참여해, 비활성화된 홈페이지의 UX 개선안 제안, 친환경·윤리 소비 요소를 강조한 제품 기획서 작성, ‘착한 소비’의 가치를 담은 콘텐츠 방향 설계 등 마케팅·기획·디자인 과정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소비자 관점에서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는 과정은 제게 큰 성취감을 주었고, 사회적 가치와 소비가 연결되는 방식을 깊이 이해하게 해주었습니다. 이 경험은 “내가 어떤 분야에서 기여하고 싶은가”를 더욱 분명하게 만들어준 계기였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적 기업 협업, 공정무역 캠페인, 윤리적 소비 콘텐츠 제작 등 실천 활동을 이어가며 지속 가능한 소비 문화를 확산시키고 싶습니다. 전과를 고민하는 학생이라면, 학과의 커리큘럼 및 졸업 후 진로, 그리고 학과 강연·비교과 참여 기회 등을 확인한 뒤 자신에게 맞는 길을 용기 있게 선택해보길 바랍니다.



대학생활 TIP. 성신여대 300% 이용하기

1학년 때까지만 해도 저는 학교에 수업만 들으러 오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참여한 러닝 스테디를 계기로 교내 비교과 활동에 관심이 생겼고, 로컬액션 챌린지와 같은 장기 프로그램, 다양한 교내 강연, 중앙도서관 영화 감상 등 캠퍼스 생활을 적극적으로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교내 비교과 활동들은 Sunshine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전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도 새로운 관심과 기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여러 분야의 경험을 쌓아보길 추천드립니다. 또한 성신 포탈과 성신 알리미 공지를 수시로 확인하셔서 학과나 행정 부서에서 운영하는 여러 프로그램과 행사의 다양한 혜택들을 꼭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마무리

이 글을 쓰며 지난 활동들을 돌아보니, 성공이든 실패든 버릴 경험은 하나도 없었고 결과보다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학교 생활을 더 열심히 해보겠다고 다짐한 후 여러 대외활동과 교내 프로그램에 지원했지만, 합격보다 불합격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다른 활동에 다시 도전했고, 그 과정에서의 도전과 실패가 지금의 저를 더 단단하게 성장시켰습니다.

성장통 멘토링에서 만난 1학년 학생들 대부분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저는 늘 이렇게 답했습니다. “관심이 가는 일이 있다면, 깊게 고민하기 전에 한 번 가볍게 도전해보세요.” 저 역시 관심 있는 활동에 하고 싶다는 마음만 갖고 도전하지 않았다면 국제학생회에 들어가 다양한 외국인 친구들을 만날 수 없었을 것이고, 봉사활동의 의미도, 지역 사회 기여 프로그램의 보람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도전하는 과정에서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하고 싶은 활동에 마음껏 뛰어들고, 그 과정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는 것을 나누다는 건, 서로가 성장하고 단단해진다는 것

멘토 이다혜

멘티 황서정, 황예진, 정해진, 이유림

1. 멘토링 목표

- '성장과 도전'이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멘티가 스스로의 강점과 관심사를 탐색하며 진로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
- 다양한 해외 경험과 교내 활동 사례를 공유해 도전의 가치와 기회 활용 방법을 이해하도록 도움
- 멘티의 학업 및 진로 고민을 경청하고, 현실적인 조언과 실행 가능한 계획 수립을 함께 진행
- 멘토로서 리더십 역량을 강화하고, 경험 기반의 나눔을 통해 상호 성장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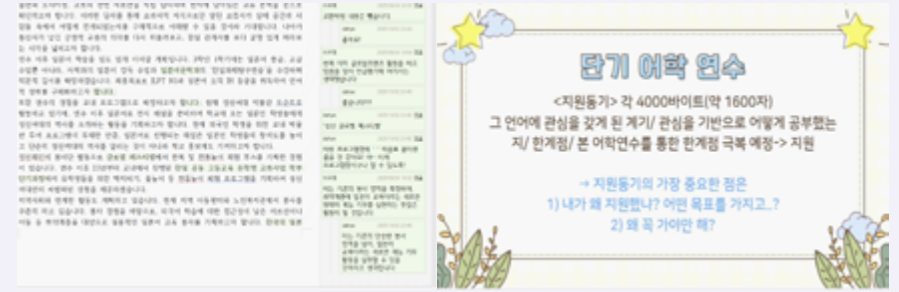
2. 주요 활동 내용

- 진로 탐색 멘토링 - 멘티의 관심 분야 파악 후, 교내·교외 프로그램 추천 및 지원 전략 안내
- 실제 경험 공유 - 도전 과정에서 얻은 배움과 성장 포인트 설명
- 교내 활동 지원서 피드백 - 멘토의 실제 사례 공유 및 꾸준한 피드백
- 노선을 활용한 로드맵 제작 - 멘티가 자신의 경험을 구조화하고 강점을 시각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지원
- 언어 공부 - 듀오링고(언어 교육 어플리케이션)를 활용한 언어 능력 향상 및 학습 루틴 만들기

3. 활동 사진



교내 비교과 프로그램 · 장학금 공유



어학연수 지원서 피드백 진행

4. 멘토 소감

멘티들이 스스로의 강점을 발견하고 진로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돕는 과정은 저에게도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1차 멘토링에서는 1학년 멘티들을 대상으로 진로 탐색에 집중하며, 방향 설정에 필요한 질문과 저만의 활동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이후 2차 멘토링에서는 교내 프로그램 참여, 포트폴리오 구성 등 보다 실질적인 실행 중심의 멘토링을 제공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단순한 조언을 넘어 저의 시행착오와 여러 고민들을 솔직하게 공유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었고, 고민과 배움을 나누는 과정 속에서도 서로가 성장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5. 멘티 소감

멘티 황예진(독일어문·문화학과)

멘티들이 스스로의 강점을 발견하고 진로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돕는 과정은 저에게도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1차 멘토링에서는 1학년 멘티들을 대상으로 진로 탐색에 집중하며, 방향 설정에 필요한 질문과 저만의 활동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이후 2차 멘토링에서는 교내 프로그램 참여, 포트폴리오 구성 등 보다 실질적인 실행 중심의 멘토링을 제공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단순한 조언을 넘어 저의 시행착오와 여러 고민들을 솔직하게 공유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었고, 고민과 배움을 나누는 과정 속에서도 서로가 성장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멘티 이유림(사학과)

멘토링을 통해 교내 비교과 및 국제교류 프로그램 등 몰랐던 정보를 많이 알게 되었고,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멘토님의 조언 덕분에 교내 국제교류 프로그램 지원서 작성과 포트폴리오 구성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세울 수 있었습니다. 지원서를 함께 작성해보며 받은 피드백은 큰 도움이 되었고, 노선을 활용해 활동과 학기별 계획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법을 배우며 앞으로의 계획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멘토링을 하면서 혼자였다면 놓쳤을 부분까지 멘토와 함께 고민했던 것이 큰 도움이 되었고, 이번 경험을 계기로 부족한 부분들을 스스로 채워가며 더 성장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6

조금은 느려도 더욱 더 단단하게



신윤서

바이오헬스서비스학과 22학번

흔들림에서 출발한 한 걸음

저는 한때 반복된 입시 실패로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졌던 학생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그림만 바라보며 달려왔던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을 때, 제게 남아 있던 것은 확신도, 목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대로 멈춰선 안 된다”라는 작은 마음 하나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흔들림에서 시작된 도전들이 모여, 결국 제 삶을 예상치 못한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저는 삼성전자 개발자 컨퍼런스 무대에서 1,500명 앞에 서기도 했고, 여러 대기업 대외 활동에서 우수 활동자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창업동아리에서 시작한 프로젝트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을 받는 성과로 이어졌고, 네이버로부터 투자유치 면담 제안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외국계 제약사에서 마케팅 인턴으로 또 다른 성장의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누군가는 제 여정을 “성공한 케이스”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실 이 모든 성취는 화려한 출발선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넘어지고 흔들렸던 자리에서 아주 작은 용기를 내서 한 걸음 내디딘 것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 수기집은 완벽하지 않은 시작에서도 충분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크지 않은 도전들이 쌓여 결국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길을 만들어준다는 것을 저 스스로 경험하며 배워온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 막막함 속에서 있는 누군가에게 꼭 말해주고 싶습니다. “너의 첫걸음도 충분히 의미 있다. 그 작은 움직임이 나중에는 너를 아주 멀리 데려다줄 것이다.”

실패 속에서 길을 찾다

제 대학 생활의 시작은 남들보다 훨씬 늦고 무거웠습니다. 고등학교 내내 오직 미대 진학만을 바라보며 수년간 그림만 붙들고 살아왔지만, 몇 번의 입시 실패 끝에 결국 그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장 좋아하던 일이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을 때, 저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일까? 나는 무엇을 잘할 수 있을까?” 대학 입학 후에도 상실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마음만은 또렷했습니다. “이대로 무너지고 싶지 않다. 다시 한 번 무엇이든 해보자.”

그때 제가 붙잡은 것은, 수년간 실패 속에서도 유일하게 놓지 않았던 한 가지—그림이었습니다. 일러스트를 작업하며 아주 작은 외부활동에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작은 미약했지만, 이 작아 보이는 도전이 훗날 제 진로를 바꾸고, 제 삶을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이게 될 줄은 당시엔 상상도 못 했습니다.

다시 걷기 시작하게 한 작은 경험들

가장 먼저 합격한 대외 활동은 밀카코리아 홍보 기획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콘텐츠를 만드는 활동이라 생각했지만, 타깃을 분석하고 감정을 이해해 메시지를 설계하는 과정을 거치며 저는 처음으로 ‘기획’이라는 세계의 매력을 느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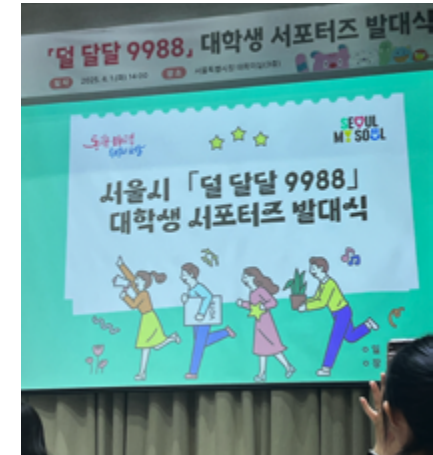
무엇보다 제가 만든 콘텐츠가 팀의 성과로 이어졌고, 처음으로 최우수 팀원으로 선정되었을 때 무너졌던 자존감이 아주 조금씩 다시 일어서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후 저는 IT·홍보·기획 분야로 활동을 확장했습니다. 삼성전자 SOSC 활동에서는 사용자 분석과 메시지 전략 수립, 팀 리딩을 맡으며 실무에 가까운 방식으로 콘텐츠를 만드는 경험을 했습니다. 특히 팀원들과 실험적으로 만든 바이럴 포맷의 콘텐츠는 내부 평가에서 큰 호응을 얻었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삼성전자 개발자 컨퍼런스(SDC) 무대에 서게 되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1,500명 앞에서 발표를 하던 그 순간, 저는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을 처음으로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우아한형제들 장학생, SK, 교통안전공단 등 다양한 활동에서 수상하며 제가 가고 싶은 방향이 점점 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기획을 꿈꾸다

콘텐츠 기획의 재미를 느끼며 성장하던 어느 날, 저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행정 근로를 하게 되었고 이 경험은 제 진로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병원 안에서 의료 정보가 전달되고 서비스가 운영되는 과정을 가까이에서 보며 기획이라는 일이 단순히 ‘홍보’를 넘어 누군가의 건강, 안전, 삶의 질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사람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기획”을 하고 싶어졌습니다. 이후 서울시 ‘9988 달달달 캠페인’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공공 기획을 경험했습니다. 캠페인 콘텐츠 제작, 생활 개선 서비스 기획 등 사람의 행동과 마음을 바꾸는 기획의 힘을 직접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생각에서 끝나지 않는 기획, 실행으로 증명하다

기획은 아이디어로 끝나지 않아야 진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창업이라는 또 다른 도전에 나섰습니다. 창업동아리 Ecobuddy에서 팀장을 맡아 1인 가구의 생활 문제를 해결하는 IoT 기기를 기획했습니다. 사용자 조사부터 BM 설계, 하드웨어 구상, 피칭 자료 제작까지 전 과정이 처음이었지만, 한 걸음씩 직접 만들어 나갔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구상에 머무르지 않았고, 스타트업 메이커 캠프 최우수상이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또 다른 연합동아리

UMC에서는 헬스케어 앱 기획자로 활동했습니다.

UX 리서치, 문제 정의, 와이어프레임 설계 등 실제 서비스 개발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경험했습니다. 팀원들과 “언젠가 함께 창업 공모전에 나가보자”는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은 놀랍게도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Ecobuddy 팀원들과 함께 도전한 여성벤처창업 공모전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UMC 팀원들과 참가한 네이버 기술창업 공모전에서 투자유치 검토 제안까지, 모든 경험이 제 역량과 꿈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줬습니다.



돌아가는 길도 결국 내 길이였다

지금 저는 외국계 제약사에서 마케팅 인턴으로 근무하며 또 한 번 새로운 성장의 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치열한 환경 속에서 글로벌 팀과 영어로 소통하고, 정직원과 다르지 않은 강도의 업무를 맡으며 스스로의 부족함을 가장 정확하게 느끼는 동시에 그만큼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을 매일 체감합니다. 때로는 벅차기도 했지만, 저는 이 과정에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길도 결국 다시 내 길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돌아보면 제 여정은 거창한 성공을 향해 곧바로 달려온 이야기가 아니라, 넘어지고 흔들리면서도 다시 일어섰다 했던 작은 용기들의 연속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제가 늦었다고 말했지만, 그 늦은 시간 속에서 저는 누구보다 깊게 고민하고 더 단단한 방향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제가 대단하다고 말하지만, 그 이면에는 특별한 재능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한 시간들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막막함 앞에 선 여러분도 분명히,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조바심 내지 말고, 대학 시절 가능한 많은 도전을

해보세요. 그 작은 움직임들이 언젠가 여러분을 상상하지 못한 곳으로 데려다줄 것입니다.”

나를 일으켜 세운 한 문장

제가 실패 속에서 방황하던 시절, 한 교수님께서 건네준 말이 있습니다. 이 문장은 제가 흔들리던 시간을 붙잡아 주었고, 앞으로의 여정을 다시 설계할 수 있게 해준 문장이었습니다. “도전해서 목표를 이루는 것만이 성공은 아닙니다. 인생은 때때로 방향을 잃고 돌아가다가도, 어느 순간 예상치 못한 곳에 도착했는데 그곳이 괜찮은 삶이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돌아가는 길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결국 당신만의 속도로, 당신만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저는 그 말을 제 삶의 가장 중요한 나침반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읽는 누군가에게도 그 문장이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기를 바라며, 저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성장은 누군가의 가능성을 믿어주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

멘토 **신윤서**

멘티 **김예서, 남현지, 박이현, 방수진**

1. 멘토링 목표

- 멘티가 자신의 관심 분야를 탐색하고 구체적인 진로 로드맵을 세울 수 있도록 함
- 취업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역량과 실전 경험을 실제 사례 기반으로 이해하도록 지원
- 멘티가 가진 고민을 함께 분석하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
- 멘토로서 체계적인 피드백 방식과 코칭 스킬을 발전시키는 것을 중점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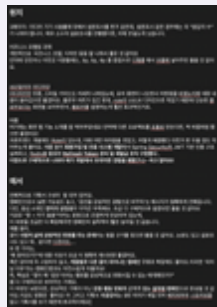
2. 주요 활동 내용

- 진로 방향 설정을 위한 직무 분석 세션과 전공 기반 모의 인터뷰 진행
- 매주 정기 만남을 통해 학습·자기관리 루틴을 점검하고 주간 목표 수립
- 멘티의 자기소개서를 실제 경험과 강점 중심으로 재구성할 수 있도록 피드백 제공
- '1일 1기록' 프로젝트를 운영하여 꾸준함과 셀프 리플렉션 습관 형성 지원

3. 활동 사진



대외활동 지원서 피드백 및 합격 전략 설계



포트폴리오 1:1 첨삭

4. 멘토 소감

멘티가 스스로의 강점을 발견하고 점점 자신감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며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경험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 용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번 활동은 멘티의 성장뿐 아니라 제게도 코칭 방식과 소통에 대해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5. 멘티 소감

멘티 박이현(경제학과)

멘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제가 나아가야 할 목표를 보다 명확히 설정하고 책임감 있게 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토의 준비와 대외 활동에 관한 실질적인 조언이 원하는 진로를 준비하는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제 고민을 성심껏 경청하고 공감해준 멘토링은 제 인생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끄는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멘티 방수진(소비자산업학과)

이번 멘토링 활동은 저에게 막막했던 진로의 방향을 잡게 해 준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멘토 언니가 대외활동과 토의 준비에 필요한 현실적인 팁을 알려주고, 대인관계와 자존감에 관련해서도 따뜻하게 조언해주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용기를 느낄 수 있었고 스스로를 믿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정보보다 더 큰 소중한 마음을 얻었습니다. 멘토링 내내 든든한 선배가 되어준 멘토님께 감사하단 말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Crystal Log'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성신에서의 도전과 성장을 기록으로 남겨보세요.
당신의 경험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고, 출발점이 됩니다.

다음 주인공으로 이야기를 이어주세요.

▶ 2026 성장통스토리공모전 모집 안내



2025 성장통스토리공모전 수기 X 멘토링 활동집

Crystal Log

인쇄일 : 2026년 1월

발행일 : 2026년 1월

발행처 : 성신여자대학교

제 작 : 미래인재처 학생지원팀

(02844)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34다길 2

T. 02-920-7011



성신여자대학교 미래인재처 학생지원팀

(02844)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34다길 2

T. 02-920-7011